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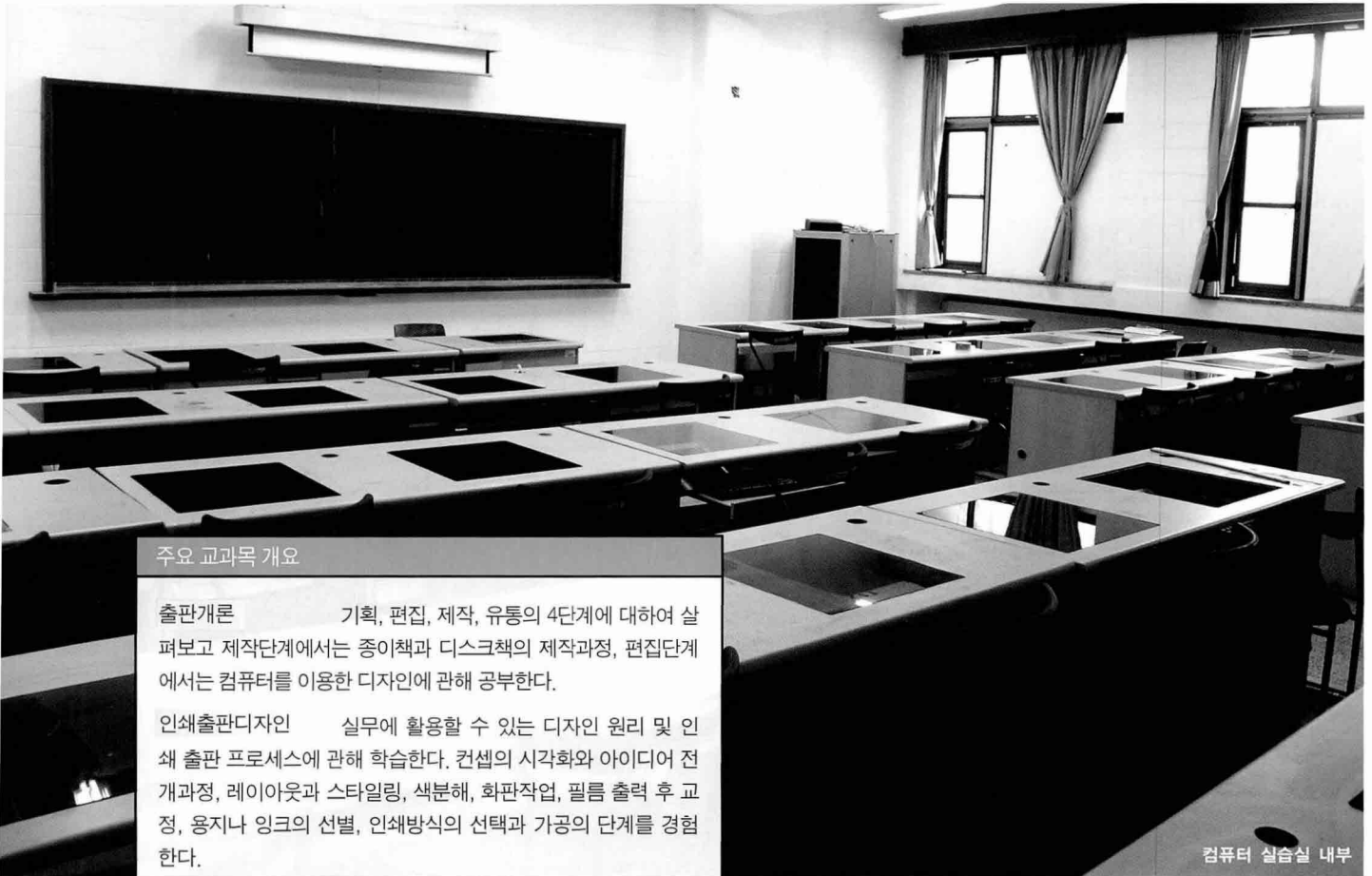
지성과 감성을 붙여넣는 전문 출판디자이너 양성 요람

단행본, 잡지, 교과서 등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펴내 복제하고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와 과정을 의미하는 출판은 크게 기획과 편집, 제작, 마케팅 4가지 핵심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부문마다 저마다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출판물 역시 하나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상품적 가치를 극대화시켜 보다 많은 독자에게 읽혀지는 것은 출판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앞에서 나열한 출판의 4대 핵심부문 전 과정을 기획·디자인 하는 출판디자인은 출판 분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통매체인 종이책에만 국한되었던

출판물의 영역도 디스크책, 화면책 등으로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전문 출판디자이너의 양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출판·인쇄 교육기관 가운데 계원조형예술대학 출판디자인과는 우리 고유문화를 보호, 계승시켜 나간다는 취지 아래 전문 출판디자이너 양성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곳이다.

예술전문 인력의 보고, 계원조형예술대학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계원조형예술대학은 국



컴퓨터 실습실 내부

주요 교과목 개요

출판개론 기획, 편집, 제작, 유통의 4단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작단계에서는 종이책과 디스크책의 제작과정, 편집단계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에 관해 공부한다.

인쇄출판디자인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원리 및 인쇄 출판 프로세스에 관해 학습한다. 컨셉의 시각화와 아이디어 전개과정, 레이아웃과 스타일링, 색분해, 화판작업, 필름 출력 후 교정, 용지나 잉크의 선별, 인쇄방식의 선택과 가공의 단계를 경험한다.

CTS 원고를 편집 팀에서 페이지 별로 레이아웃을 하고, 완료된 파일을 보내서 출력하는 과정을 공부한다.

프린팅테크닉 인쇄출판을 위한 테크닉수업으로 판화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출판의 방법을 경험한다. 이러한 프린팅 방법을 통해 미적 감각을 함양한다.

DTP I (IBM · MAC) 지면 편집 프로그램인 페이지 메이커와 문방사우, QuarkXPress를 사용하여 출판 프로세스를 익힌다.

북디자인 풍부한 상상력과 예술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디자이너 에세이에 의한 미적 대상물로서의 책의 형태로 시각화한다. 또한 사용자의 가독성을 고려하는 인체공학적 접근과 감성적 접근으로 북 디자인의 새로운 시도를 한다.

타이포그래피 출판디자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타이포그래피를 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에서 연구한다. 활자의 선택에서부터 크기, 두께, 색상, 레이아웃 등을 조형 연습한다.

전자출판디자인 출판 기획에서부터 편집, 제작,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습위주의 강의와 PPP(Pre press-Press-Post press)교정 및 CD-ROM 굿지와 웹 디자인을 주로 실습한다.

출판커뮤니케이션 출판의 4단계인 기획, 편집, 제작, 마케팅 중에서 기획 단계부터 편집 단계의 시작부분까지를 학습한다. 발상과 착상을 거친 아이디어를 '말'이라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출판일러스트레이션 창의성을 중점으로 책의 내용에 맞는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방법 연구에 중점을 둔다.

내 에능대학 중에서도 조형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특화시킨 전문 교육기관이다. 1993년에 문을 연 이곳은 디자인조형예술과 산업현장의 연결을 도모함은 물론, 첨단예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내 독보적인 조형예술 교육 기관답게 현재 3계열(디자인계열, 예술계열, IT계열) 17개 학과가 개설돼 26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계원조형예술대학은 교수진의 연구활동 및 국제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국제독립미술대학연합에 가입한 것을 비롯해 영국 킹스턴대학교와 교환학생, 교환교수, 상호 학점 인정에 대한 협정을 조인했으며, 200여명(강사진 포함)으로 구성된 교수진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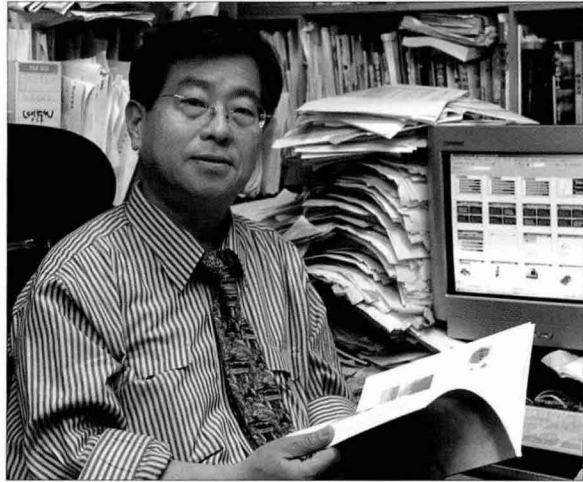
계원조형예술대학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계원예술고등학교이다. 같은 계원학원 학교법인인 이곳은 미술, 음악, 무용 연극영화를 실기 위주로 지도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많은 인재를 배출해냈다. 인기 배우 황정민, 조승우, 김지수, 소유진 등이 이곳 출신이다. 현재 분당 신시가지로 이전한 계원예고는 5000여 평의 대

“출판 디자이너는 출판과 인쇄를 연결하는 다리”

◎ 출판디자인에 관심있는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내에는 2만개가 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타업종에 비해 굉장히 고용시장이 넓은 셈이죠. 더구나 출판디자인을 전공하면 출판사 말고도 인쇄분야 등 타 산업으로도 진출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출판디자인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출판에 있어서 디자이너는 책의 꼴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디자이너는 편집의 상태와 요구사항들을 관리하여 두 개의 분리된 시스템을 연결하는데 그 하나는 편집과 관련한 업무들(글, 그림, 사진 등)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제작과정들로서 타이포그래피, 인쇄, 제책 등이 그것입니다.
때문에 출판 디자이너는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 판형, 인쇄, 제판에 이르기까지 토탈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좋은 디자인을 위해 가능한 많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색다른 시도와 시각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출판 디자이너의 몫이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 출판디자인은 그래픽디자인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합니다.



편집 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의 차이점은 편집 디자인이 본문의 글자를 위주로 한다는 것에 비해 그래픽 디자인은 글자보다 그림을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단행본, 잡지 등 정해진 형식에 의거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편집 디자인이라면, 그림을 엮서처럼 각 장으로 만들어 앨범같이 제책한 그림모음(그림집)을 디자인하는 것이 그래픽 디자인이라 할 수 있죠. 문제는 편집 디자인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그래픽에 대한 교육만을 받았기 때문에 각 매체의 특징과 독창성을 인식하는 시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잡지 형식의 메시지 전달 방법에 대한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 위에 예술 실기동, 공연 예술동과 같은 실습관 마련으로 충분한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150여명에 이르는 교직원과 1100여 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어 규모면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명실상부한 예술교육 요람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

캠퍼스 전체가 하나의 조형 박물관

국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조형예술 교육 기관답게 이 대학의 캠퍼스는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을 연상케 한다. 교정은 물론 건물 내부마다 각기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이들을 감상하는 일은 하나의 즐거움이다. 여기에 건물전체가 덩굴로 뒤덮힌 모습은 가히 도심속의 작은 정원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우아하고 세련된 건물 이미지도 빼놓을 수 없는 감상 포인트다. 이때문에 계원조형예술대학은 각종 TV 드라마 및 영화의 단골 촬영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얼마전 인기리에 종영한 MBC 드라마 ‘궁’의 주요 촬영무대가 되기도 했으며 이정재, 전지현 주연의 영화 ‘시월애’ 에도 두 남녀 주인공의 애뜻한 사랑이야기의 배경으로 등장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코스이기도 하다.

책의 기획·디자인에 관한 자질 배양에 중점

1995년에 전자출판전공으로 문을 연 출판디자인과는 이후 전자출판과, 전자출판디자인과를 거쳐 지금의 학과명으로 변경됐다. 1,2학년 합쳐 총 14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흔히 출판디자인이라고 하면 편집디자인과 같은 의미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출판 디자인은 출판하고자 하는 출판물의 판형·체제·장정 등에 관한 총체적 기획과 출판물의 미적 효과와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출판물 전반에 관한 기획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편집디자인(editorial design)도 포함되지만, 편집디자인이라고 하면 흔히 판면의 구성(layout)이나 활자의 지정 등 편집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말한다. 출판디자인은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출판물 전체에 관한 포괄적인 기획을 지칭한다.

계원조형예술대학교 출판디자인과의 교육목표는 바로 기획과 컨셉에 따른 디자인 전개 등의 총괄적인 출판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종이책 뿐만 아니라 디스크책, 화면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제작 및 이론 교육을 늘려나가고 있다.

실무중심 교육으로 현장 적응능력 강화

출판디자인과는 전체 커리큘럼에서 이론과 실무를 3:7비

율로 안배해 교육한다. 실무에 높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2년 4학기제로 운영되는 교육일정상 단시간 내에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학년 1학기에는 출판개론 및 사진, 컴퓨터, 디자인 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습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출판과 출판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며, 색상과 질감의 표현, 빛에 대한 파악 등을 여러 관점에서 공부한다.

이 과정을 통해 출판에 대한 개념과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2학기에는 본격적인 제작기법을 배우게 된다. 출판디자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타이포그래피는 물론, 비중이 매체의 증가에 맞춰 CD-ROM 및 DVD BOOK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며, 대표적인 DTP 프로그램인 Mac과 IBM를 통한 출판 프로세스를 익히게 된다. 이외에도 인쇄출판을 위한 프린팅테크닉이나 도형이나 그림 등의 데이터를 조작, 출력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배우는 컴퓨터 그래픽 교육도 함께 병행된다.

2학년 과정에서는 보다 심화된 디자인 교육이 이뤄지는 동시에 전문 출판디자이너로서의 마인드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출판의 내외 환경과 기획, 출판기획의 목표 및 심리과정, 그리고 형태별 출판 기획 등을 학습하는 출판기획론 등이 그것이다. 기획에서 디자인, 제작까지의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인턴십 과정인 작품연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이 과목은 학생들이 종합적인 디자인 연구를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는데 유용한 과목이기도 하다.

2학년 2학기는 전문 출판디자이너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취업과 연계된 교육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전공선택으로 산업현장실습을 통해 미리 자신의 실무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취업시 필요한 포트폴리오 제작과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 면접시 필요한 사항에 대비, 프리젠테이션 기법을 향상시키게 된다.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4년제 전환 추진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현장적응력이 검증된 덕분에 출판디자인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매년 7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비율을 제외한 순수 취업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졸업생들의 진로도 다양하다. 출판사는 물론 인쇄사, 디자인스튜디오, 신문사, 방송국, 기업체홍보실, 광고회사, 기획회사,

웹디자이너, 표지디자이너 등 자신의 적성에 맞춰 진출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열려 있다.

계원조형예술대학은 현재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4년제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2년제에서는 실무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4년제가 된다면 이론과 실무교육을 좀 더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출판디자인과 이기성 교수(학과장)는 “4학기제에서는 촉박한 학사일정상 실습교육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디자인이란 전공수업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능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며 다양한 교양 수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4년제 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용적과 교수확보율이다. 건물용적은 이미 기준을 넘은 상태인데 남은 과제는 교수 확보이다. 이는 단지 출판디자인과만 충족율을 넘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의 비율을 따져야 하는 문제다. 이 교수는 “학교차원에서 내년까지 교수 확보율을 기준에 맞추고 이르면 내후년쯤에 4년제 전환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